

강제노동소의 공주, 왕자님들

새벽 6시 호수를 낀 언덕 중턱에 벌써 아이들이 세면대에 하나둘씩 모여들어 눈을 비비며 이를 닦고 세수를 하려고 주욱 모여 섰다. “너석들…집같으면 방학이라 늦게까지 TV 보랴 컴퓨터하랴 새벽이나 잠자리에 들어 대낮까지 퍼져 잠을 자고 있었을텐데…” 벽두 새벽부터 교도소로, 헤비테트로, 홈레스쉘터로 각자 맡은 일을 향해 준비하느라 군기가 바짝들어있다. 어제 고된일을 한덕분에 10 시반에 취침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코를 골며 자야했기에 새벽에 거뜨일어날수 있게 되었고 그런 자신들이 대견해 또다른 힘든 스케줄앞에서도 마냥 씩씩하고 즐겁다. 각 조대로 나뉘어 호명이 있은다음 부지런히 시리얼과 주스, 베이글로 아침을 먹고 그나마 조금늦은 아이는 대강대강 크림치즈를 발라 주먹에 흠겨주고는 자기벤에 올라타느라 바쁘다. 다들 집에서는 공주병 왕자병으로 한몫들을 단단히 하실 귀한 몸들이실텐데(?) 이곳에서의 아이들은 마치 조금 과장해서 지네들식의 표현으로 “강제 노동소”(?)란다. 그렇게 더운날씨에 옷이 흠뻑 젖도록 일을 하며 먼지와 땀이 범벅이 되서 돌아오는 그들은 더이상 미남미녀 왕자님, 공주님들이 아니다. 삶에 의지와 투지가 용솨음치는 산업전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의기양양해서 벤에서 내려 텐트가 있는 곳으로 언덕을 뛰어내려오는 그들은 그야말로 개선장군같은 모습들이다. 장마로 휩쓸어버린 웨체스터의 빈촌의 썩은 웅덩이와 흙이 떠밀려와 엉망이된 마을을 뒤집어엎어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느라, 그리고 집벽을 붙이고 지붕의 골격들을 세우느라 젖먹던 힘까지 다썼을텐데 아이들에게서는 피곤함보다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것을 느낀다. 집에서는 운동이나 노동은 커녕 얌전히 책앞에 혹은 컴퓨터앞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간식으로 입과 배를 즐겁게 채우는데도 늘 몸은 늘어지고 피곤하고 때로는 생기가 없어보여 부모에게 걱정스럽게 보였던 그들이 더이상 아닌것이다. 자기방의 청소는 고사하고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않던 그들이 캠프사이트의 모든 쓰레기들을 수시로 보이는데로 다 주워서 치우는가 하면 홈레스쉘터에서 무숙자 들의 방과 침대시트 그리고 구호용품을 가지런히 정리와청소를 한다. 심지어는 쉘터의

지저분한 화장실 그리고 썩은 냉장고, 죽은 쥐들까지 말끔히 청소를 하고 청결한 장소로 만들어놓는 그들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 우리 인솔자들은 의아해진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것일까? 바로 그들의 가슴과 생각을 따스하고 생동감있게 채워준 사랑의 나눔을 경험했기 때문인것이다.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다.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머물러있는것은 사랑이 아닌것이다. 사랑은 마치 거친호흡처럼 늘 살아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표현될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것이다.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으로인해 자신들에게 채워지는 생명력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뿐이다. 광야캠프장에 온 첫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리버리하던 그들이 더이상 아니었다. 땀흘려 고생하는 신선한 노동의 즐거움을 뛰어넘어 자신의 수고와 땀으로 다른사람의 눈물을 씻기고 지친 인생들에게 삶을 함께 나누는 자기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에 자신에게 한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보는것은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게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어른들에게 부르짖는 “leave me alone, don't bother me”등의 참된의미는 “제발 바른 권위를 가지고 나를 제대로 인도해주세요”라는 또다른 의미라고 한 “제임스 돕슨”의 말을 광야캠프의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또다시 깨달으면서 아이들을 생명으로 채우는 그 여름을 또 기다리는 나를 본다.